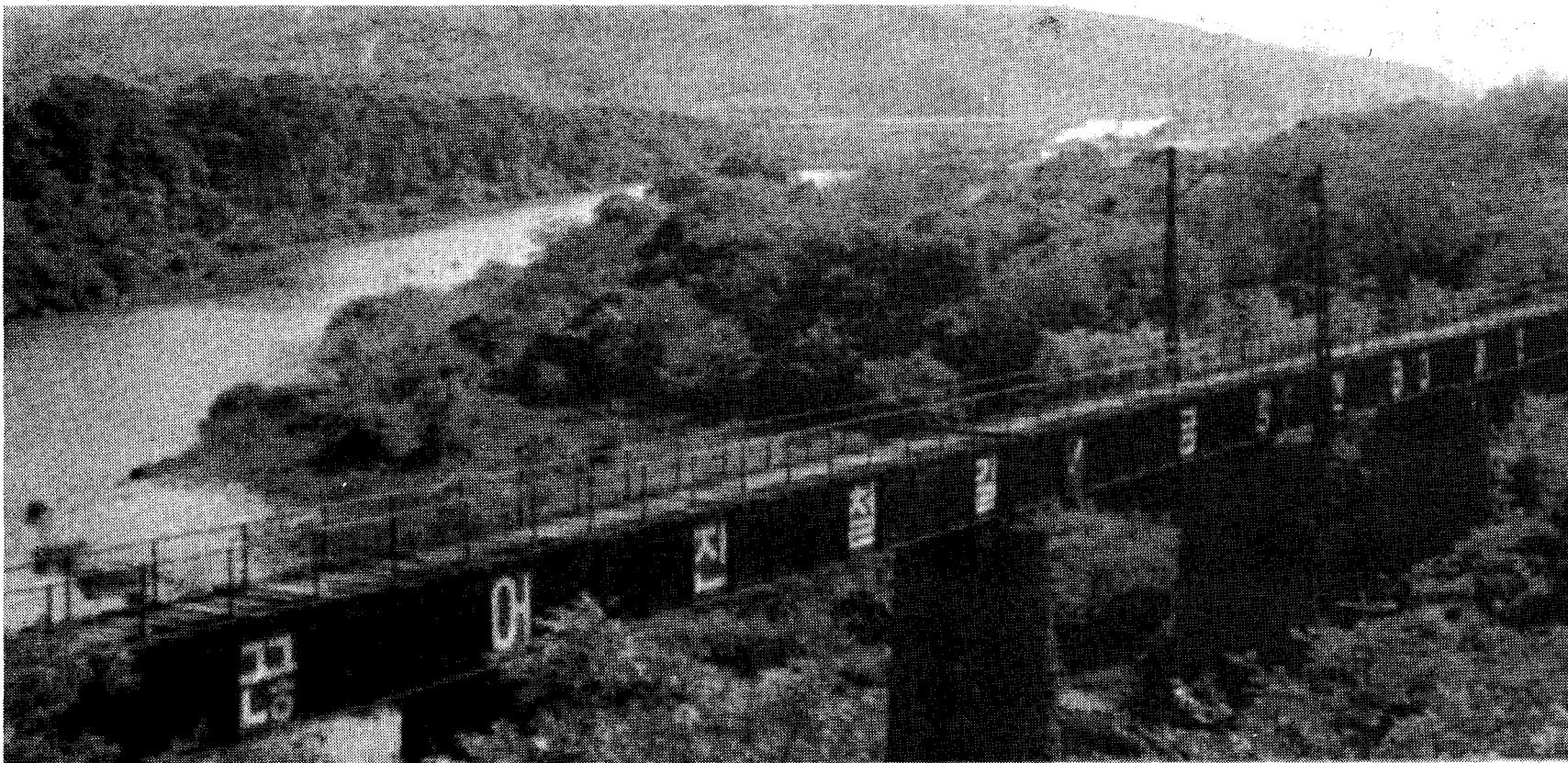


르브-비무장지대를 다녀오다



DMZ는 '반공'을 말한다

전운의 긴장감에 북녘 하늘은 고요

남북주민 만날 수 있는 화합의 장 있어야

한반도 분단의 산증거인 비무장지대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6.25전쟁이후 45년간 자연환경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145km의 비무장지대가 안보교육이라는 목적하에 공개된 것이다. 금새라도 갈 수 있을 법한, 보고만 있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눈앞에 펼쳐진 북녘의 경관을.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다녀왔다. <편집자>

서울에서 철원의 군사분계선까지 자동차로 3시간 거리.

이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니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북녘동포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구 끝 어디라도 이동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지만 고작 3시간거리에 있는 북녘동포와의 만남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갑툭튀한 북녘의 산천이 시야에 넓게 들어오지만 철조망에 매달린 '치외지역'의 팻말은 절대 불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후세대인 청년학생들은 이시대가 참혹한 한국전쟁의 휴지기임을 알고나 있을까? 또 동시대를 살고 있는 북녘의 청년학생들도 알고 있을까? 매년 실시되는 통일특설 설문조사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젊은 우리들을 가슴아프게 한다.

회기동에서 철원 고성정(한탄강 중류지점에 있으며 고성바위와 주변 계곡을 통칭하여 고성정이라 부른

다)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DMZ관광코스 중의 하나인 철의 삼각지(철원, 평강, 김화지역을 일컫는 말) 코스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이곳 고성정에서 출입 철차를 밟아야 방문이 가능한데 반드시 차량이 있어야 한다. (하루 다섯차례 접수를 받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받는다). 우리가 찾은 7일은 가뭄 끝에 내린 장대비가 지난 해 해빙고 간 철원의 수해지역을 강하게 뿌리고 있었다. 아직까지 수해 복구작업이 되지 않은 길목마다 포크레인 과 불도저가 주민들을 대신해 외지의 관광객을 맞이한다.

철의 삼각지 코스는 고성정에서 제2땅굴, 월정역, 전방대, 철새도래지, 백마고지, 노동당사를 일주하는 하루코스(총길이 64.5km)로 총 4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곳의 개방목적은 안보교육이라고 한다.

안보교육답게 제2땅굴은 병사가 안내하는데 그 친절함에서도 '북괴'라는 단어를 쓸때마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포애는 사라지고 반드시 없애야 할 적으로 느껴진다. 땅굴 발견정위와 어찌됐든 분단의 아픈 상처를 관광상품화하는 당국의 처사가 통일보다는 고착화된 남북분단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관광객인 노년의 한 신

사본은 "이왕 둘러진 굴이니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지하철이나 놓는 것이 어떠냐"고 안내를 맡은 병사에게 큰직한 목소리로 묻는다. 모두들 웃었지만 한변쯤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남북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어떨까?

전방대에서 보이는 철조망은 남녘과 북녘의 경계를 확연히 들어낸다. 간간히 들려오는 병사들의 경계소리와 군견의 '오르렁' 소리는 긴장감을 나타내는데 북녘은 고요에 휩싸여 있다. 오직 우리만이 호들갑을 떨며 북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나 싶다.

전방대 옆에 자리한 월정역은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아왔던 '철마는 달리고 싶다' 안내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역엔 달려야 할 '철마'는 간데없고 그 잔해만이 굽어진 빗줄기에 앙상하게 들어내쳐 처량함만이 있을 뿐이다.

차머리를 돌려 철새도래지로 향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번씩 있는 '작전상황'에 내몰려 천혜의 아름다운 보지 못한채 노동당사로 둘러싸였지만 때마침 이따금씩 철새들의 가슴트인 비상이 그나마 아쉬움을 달랜다. 전쟁의 잔악함을 고스란히 간직한 노동당사는 건물의벽만이 지난날의 참혹함을 뒤로한채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 한채 만이 주위의 자연에 휩싸여 양

상함을 들어내지만 폭격에 맞은 듯한 형상은 마치 고대유적지에 온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한국전쟁중 24번의 주인이 바뀌고 포탄의 폭격으로 고지의 높이가 1m 낮아졌다는 백마고지(철원군 대마리에 위치)는 '뚝 기리기'를 좋아하는 한국인 정서에 맞게 높다란 '전적비'가 그 위용을 자랑한다.

또한 고지 안쪽으로 자리한 '자유의 종'은 6월6일 현충일과 10월16일 고지탈환의 날에만 울릴뿐 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머지 가볍게 종을 울려 북녘동포들에게 우리가 왔다는 표시를 내어보였지만 북녘 하늘은 조용하기만 하다.

통일은 우리시대에 당연한 과제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비무장지대는 전문만이 감돌 뿐 통일의 기운은 간데 없다. 오히려 섬멸할 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공도 좋고 안보도 좋다. 정작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돌아오는 길에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한승우 편집위원
최현일 기자
최운옥 기자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인의 의식구조

학생 36.6% 통일문제 무감각

북한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요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점점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과연 학생들도 통일에 대해 당위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인의 의식구조'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편집자>

우선 현 사회에 있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선 119명(36.6%)의 학생이 '그저 그렇다' 또는 '불필요하다'라고 답해 통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 지기반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임이 여실히 드러났고,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므로' 130명(40%)와 '외세로부터 실질적 독립을 얻기 위해' 90명(27.7%), '경제, 군사적 강대국이 되기 위해' 62명(19.1%)등,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 합리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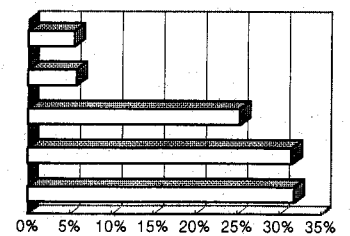
또한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는 주변강대국 122명(37.6%), 남북한 정치주도세력 112명(34.6%)이 우위를 차지해 정치주도세력

에 대해 학생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남북한 공동체의식 배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4명(41.3%)으로 압도적이진 않지만 다른 대담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해 오로지 간담안의 이질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공동체의식 배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식 문항으로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북한을 여행하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와 학생들이 폐쇄된 북한사회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백두산을 등정하겠다', '북한유적지를 탐방하겠다'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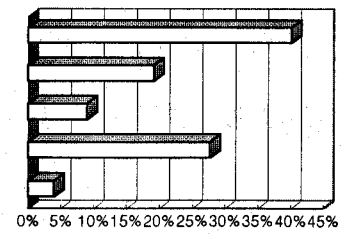
1. 현사회에 있어서 통일의 필요성은 어느정도로 생각하는가

- ① 매우 불필요 18명
- ② 불필요 19명
- ③ 그저 그렇다 82명
- ④ 필요하다 102명
- ⑤ 매우 필요하다 1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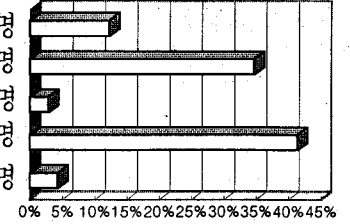
2.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① 하나의 민족이기에 130명
- ② 경제, 군사적 강대국 62명
- ③ 전쟁 두려움 제거 29명
- ④ 외세로부터의 독립 90명
- ⑤ 기타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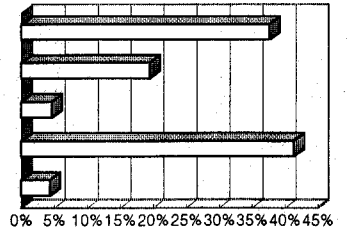
3.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라 보는가

- ① 통일 필요성 망각 67명
- ② 남북한 정치주도 세력 112명
- ③ 남한내 대기업 9명
- ④ 주변강대국 122명
- ⑤ 기타 14명



4. 통일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 ① 문화적 이질화 극복 98명
- ② 남북한 경제 발전 63명
- ③ 군사무기 감축 15명
- ④ 공동체의식 배양 134명
- ⑤ 기타 14명



표본집단 : 서울캠퍼스 150명, 수원캠퍼스 174명
조사기간 : 97년 5월 6일~5월 9일

당신의 인생노트에 경희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본 대학교는 1997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학기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

1)전임교원

구분	대학 및 학부	학과 및 전공	모집전공
서울 캠퍼스	법학부	민법	법학전공
	경제통상학부	계량경제학	계량경제학전공
	사범대학	교육학	교육학전공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과전공
수원 캠퍼스	자연과학부	물리학과	물리학과전공
	자연과학부	화학학과	화학학과전공
	자연과학부	생물학과	생물학과전공
	자연과학부	지구과학과	지구과학전공

2)학기제 교원(비전임 교원)

구분	대학 및 학부	학과 및 전공	강의분야
서울 캠퍼스	문리대학	지리학과	지리정보시스템(GIS)
	경영학부	경영학과	경영정보시스템(MIS)
수원 캠퍼스	외국어대학	영어영문학과	영문학과
	자연과학부	물리학과	물리학과전공

2.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간명

3. 자격

- 가.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접수마감일 기준)로서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나. 영어회화, 일어회화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하며, 원어면에 한함.

4. 제출서류

- 가. 국문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전공분야, 전화연락처 명기).....1부
- 나.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각1부
- 다. 최종학위증명서 사본.....1부
- 라.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 마. 추천서(최종학위논문 지도교수).....1부
- 바. 연구실적목록(제목, 연구자, 발표년월일, 발표기관 및 학술지명, 논문개요 순으로 기재).....1부
- 사. 93. 9월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 200%이상 및 학위논문.....각1부
- 아. 2년간 연구계획서.....1부
- ※학기제교원 및 언어교육연구원(Native Speaker) 지원자는 바, 사, 아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가. 제출기한: 1997년 6월 5일(목) 12:00(토, 일요일은 접수 안함)
- 나. 제출처: 해당캠퍼스 교수과

6. 기타

- 가. 심사결과를 면접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 나. 전임교원 채용자는 본교 신입교수 임용규정에 의거 2년간 계약제로 임용함.
- 다. 학기제교원은 본교와의 계약에 의거 임용함.
- 단, 1년 단위로 계약하되 8개월 근무(강의기간) 조건으로 계약함
- 라. 해당분야 자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마. 외국증명은 번역문을 첨부할 것.
- 바. 우편접수는 기한내에 도착된 것만 접수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yunghee.ac.kr>, 천리안 go khus를 참고 바람.
- ※서울캠퍼스: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 (02)961-0051~2
- ※수원캠퍼스: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 (0331) 280-2011~3